

공시가격 14년만에 하락...서울 단독주택 8.5% ↓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 넘게 하락...‘역대 최저치’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할 때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변동률인 10.17%보다 16.09%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09년(-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가자 2006년 변동률 집계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시지가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땅값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이 역시 올해 변동률(7.34%)에 비

하면 13.29%p 떨어진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이 역시 표준주택이 지난해(2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현실화율(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며 “앞서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침체가 가파른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땅과 단독주택은 시세가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현실화율 하향 조정의 영향만으 로 보면 토지는 8.4%, 단독주택은 7.5% 하락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지의 경우 122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뉴스

청년층 취업자 21개월 만에 감소 전환

11월 취업자 반년 째 둔화...60세 이상 48만 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11월(55만3000명) 이후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증가한 일자리의 76%는 고령층인 반면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됐으며 청년층도 취업자가 내림세로 전환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둔화하고 운수·창고업과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감소하는 등 산업별 명암도 엇갈렸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6000명(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999년 11월(121만7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 10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 확대됐다. 6

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 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 로 보면 제조업이 10만1000명(2.3%)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전월(20만1000명)보다 둔화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만1000명(11.2%)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도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5.5%) 등에서도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2.3%), 운수 및 창고업(-1만2000명·-0.7%) 등에서는 뒷걸음질했다. 금융 및 보험업(-2만7000명·-3.4%)도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증가했다. 증가한 일자리 62만6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가 76.5% 차지했다. 50대 9만2000명, 30대 6만6000명 각각 증가, 40대에 6000명, 20대 4000명 감소했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000명 쪼그라들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설 특별자금 300억 펀다

광주전남본부, 100억 증액...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설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00억원)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설 명절 특별자금 200억원에 비해 1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지원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이며 광주·전남지역

업체(업체당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 이내)가 대상이다. 단 부동산업, 유증업 등 대출제의 엄격에 속한 업체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제무사업, 병원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된다. 설 특별자금은 지원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 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을 지리(2022년 12월 현재 연 1.75%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권현안 기자

명문장수기업 DSR제강(주) 현판식 개최

2009년 북미 점유율 1위·2014년 1억불 수출탑 수상 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DSR제강(순천시 소재)에 대해 현판 제막식을 12월 14일 개최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물꼬를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에 도입이 됐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은 전국에서

총 90개사가 선정해 서면 및 현장평가, 언론 평판 검증,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DSR제강을 포함한 7개 업체가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DSR제강이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DSR제강은 1971년 설립된 이후 탄소강 와이어 및 로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2,071억 원, 직원 17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북미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무역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에 도입이 됐다. 올해 명문장수기업은 전국에서 /권현안 기자

북광주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6000억 달성탑 수상



농협광주본부는 북광주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6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호금융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

로 여수신 부문별 수여 기준에 부합하는 농·축협에 시상하는 제도다. 북광주농협은 지난 2020년 7월 예수금 5000억원 달성에 이어 2년 만에 6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상봉 조합장은 “로나19 상황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이며, 조합원과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한걸음 더 도약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안 기자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포스코, 13년 연속 1위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orld Steel Dynamics(WSD)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1999년 설립된 WSD는 글로벌 철강사를 대상으로 매년 23개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간) 친환경 기술혁신, 고부가가치제품, 가공비용, 인적역량, 신성장사업, 투자환경, 국가위험요소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평균 8.5점(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WSD의 필립 엔글린(Philipp Englin) CEO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포럼(HyS)이 철강업계 별류체인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 탄소중립을 위한 구심점이 되었다”며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공동개발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포스코가 추진중인 400억 불(미국달러) 규모의 호주 친환경 철강원료·수소 투자도 포스코의 탄소중립 실현과 성장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스페인 직수입 와인 8종 단독 선배 홈플러스는 고품질 스페인 와인을 선별 공수해 대형마트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인은 수 천 년의 오랜 와인 생산 역사를 보유한 대표 와인 강국이다. 이번엔 선보이는 스페인 와인은 세계 최고의 와인 평론가로 유명한 제임스 서클링이 직접 시음하고 평가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스페인 전역 각 지역별 유명 와이너리의 대표 와인을 들여와 차별화 했다. /뉴스

부영그룹, 화순군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협약

공가세대 확보 후 내년부터 연간 100세대씩 공급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화순군과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부영그룹은 14일 화순군청에서 한성욱 부영 호남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화순군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군의회의장, 박철원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화순군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제안했고 부영그룹은 이에 깊이 공감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화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따른 젊은층 유입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부영그룹은 현재 운영 중인 화순부영 아파트의 공가세대를 확보한 후 내년부터 연간 100세대씩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 공급할 계획이다. 화순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는 총 5개 단지로 지상 13-15층, 26개동, 전용면적 39-59㎡ 총 4595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식당, 마트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연초, 화순제일초가 인근에 있다.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고,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 동면농공단지, 능주농공단지, 도곡농공단지 등이 있고, 광주까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수요도 많다. /최은주 기자

‘나주·영암·장성’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장려상

나주 봉황·영암 군서농협·장성 황룡농협이 생산성 향상

전남지역 농업 경영체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생산성 향상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나주 봉황농협, 영암 군서농협, 장성 황룡위탁영농법인인 장려상을 수상해 각각 한국농식품유통공사장상과 시상금 300만원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영암 군서농협과 장성 황룡위탁영

농법인은 2021년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했다. 수상 경영체는 철저한 생산체계 구축과 재배포장 관리로 콩 생산량이 10a당 전국 평균단수(평년기준) 182kg보다 2배 높은 371kg을 기록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박종배 기자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20~22일 비대면 사전판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내년 설 명절 승차권을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설 명절 기간인 2023년 1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운행되는 KTX·ITX-새마을·무궁화 열차 승차권이다. 코레일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 10%를 우선 배정했다. 예매 첫날인 20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등록)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예매가 가능하다. 2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충남내륙·경북선, 22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기간 예약한 승차권은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구입할 수 있다.